

# 여름 극장가 한국영화 강세

한달간 관객수 3400만명  
 '신과함께2' '공작' 등 흥행 주도  
 '미션 임파서블' 등 시리즈물 선전  
 가족·어린이 영화도 인기몰이

폭염과 함께 관객으로 북적인 극장가 여름 성수기도 끝물에 접어들었다. 올여름에는 한국영화와 할리우드 영화가 고른 사랑을 받았다. 공감과 휴머니즘을 앞세운 작품들이 가족 관객을 호응을 얻었고, '공작' '미션 임파서블' 등 장르영화는 4050 남성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였다.

◇ 한국영화 강세 속 할리우드 시리즈물 고른 흥행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여름 성수기인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관객은 3443만 명(매출액 2천8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 성수기(7월 20~8월 20일) 때 3483만 명(매출액 2736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극장 매출은 관람료 인상과 4DX·아이맥스 등 특수관 흥행 등으로 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 늘었다.

이 기간 한국영화 점유율은 58.0%로, 지난해(62.0%)보다는 낮아졌다. 한국영화가 올해도 강세를 보였지만, 할리우드 영화도 관객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신과함께-인고연'('신과함께2')이 1천130만 명을 동원하며 올여름 관객 3분의 1을 가져갔다. 순제작비 165억 원이 투입된 '공작'도 400만 명을 넘기며 손익분기점(48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여름 끝자락에 선보인 '목격자'도 137만 명을 기록, 손익분기점(184만 명) 고지를 앞뒀다.

다만, 올여름 기대작 중 하나였던 '인랑'은 90만 명을 동원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롯데컬처웍스 강동영 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올여름은 공감, 휴머니즘으로 집약되는 따뜻한 메시지에 관객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면서 "용서와 구원을 말하는 '신과함께2', 이념을 넘어서는 교감을 다룬 '공작', 도시 소시민의 불안을 다룬 '목격자'가 순차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외국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미션임파서블2)이 643만 명을 불러모으며 올여름 흥행 2위를 기록한 가운데 '인크레더블2'(302만 명), '맘마미아!2'(158만 명), '몬스터호텔'(90만 명) 등 시리즈물이 큰 사랑을 받았다.

CGV 관계자는 "블록버스터들이 개봉일을 분산하면서 고른 흥행력을 보였다"면서 "특히 '신과함께2'가 초반 관객몰이에 성공하면서 후반에 등반한 '공작'과 '목격자'도 속풍이 트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 4050 남성 관객 '복작'...국산 아동용 애니도 선전  
 40~50대 남성이 극장을 많이 찾은 점도 특징 중 하나다.

CGV리서치센터가 분석한 올여름 개봉작 관객 분포에 따르면 '신과함께2', '미션임파서블2', '공작'은 남성 관객 비중이 각각 동기작 전체 남성 비중보다 높았다. 분석 기간은 각 개봉일로부터 지난 16일까지다.

나이트클럽은 '신과함께2'의 경우 10대와 40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0대 자녀 손을 잡고 극장을 찾은 관객이 많았다는 의미다.

'미션 임파서블2'와 '공작'은 50대 이상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전통적인 액션, 정치 스릴러는 장르가 중장년 남성의 호응을 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뮤지컬 영화인 '맘마미아!2'는 여성 비중이 7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내 아동용 애니메이션도 약진을 주목할 만하다. 이달 1일 개봉한 TV 시리즈 '헬로 카봇' 첫 번째 극장판 애니메이션 '헬로 카봇: 백악기 시대'는 85만 명을 동원해 한국 애니메이션 역대 흥행순위 4위에 올랐다. '신비아파트: 금빛 도깨비와 비밀의 동굴'도 68만 명을 불러모으며 선전했다. /연합뉴스



##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트랙리스트 공개

24일 발표 ... 신곡 7개 포함 25곡

그들 방탄소년단(사진)이 오는 24일 발표할 리퍼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 結 ANSWER)의 트랙리스트를 20일 공개했다.

새 앨범에는 '에피파니'(Epiphany)를 비롯해 '트리비아 기:저스트 댄스'(Trivia 起:Just Dance), '트리비아승:러브'(Trivia 承:Love), '트리비아 전:시소'(Trivia 轉:Seesaw), '아이미 파인'(I'm Fine), '아이돌'(IDOL), '앤서:러브 마이셀프'(Answer:Love Myself) 등 7개 신곡과 그동안 발표한 곡을 포함해 총 25곡이 담겼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앨범은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주요 곡을 담은 콘셉트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빅히트는 "특히 트랙리스트 A에 수록된 16개 곡은 하나의 주제 아래 음악, 스토리, 가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며 "탄압과 사랑으로부터 자아를 찾아가는 감정의 흐름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25~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새 앨범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인다. 이들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15개 도시에서 33회 공연한다. 서울, 북미, 유럽지역 공연은 완판됐다. /연합뉴스

## 中 본토에서 한국식 중화요리로 도전

내달 8일 tvN '현지에서 먹힐까?'  
 이연복 셰프·김강우 등 출연

tvN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사진)이 다음 달부터 방송된다.

'현지에서 먹힐까?'는 특정 국가 음식 전문가로 알려진 셰프가 해당 나라를 직접 찾아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태국편에는 홍석천과 가수 이민우, 배우 여진구가 출연했다. 중국편에는 이연복 셰프와 배우 김강우, 개그맨 허경환, 배우 서은수가 출연한다.

이들은 한국식 중화요리로 중국 본토에 도전장을 내민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질리새우, 간풍기, 가지달걀, 동파육, 멘보샤 등 다채로운 요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9월 8일 오후 6시 첫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18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아시아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여기는 자카르타	40 지구촌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11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12				
1	20 2018 평양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3	30 행복한 지도 (재)	00 자동안부착상 위키 2 2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	00 사사건건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여기는 자카르타	00 1대 100(재)		
6		00 강력추천 배틀 트립 40 2TV 생생정보		
7		50 끝까지 사랑	00 MBC 뉴스데스크 40 2018 아시안게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0 2018 아시안게임
8	25 내일도 맑음	30 주간연예수첩 55 1대 100		
9	00 KBS 뉴스 9			
10	00 광복절 특집 시사기획 창 55 UHD 스텐더	00 러블리 호러러블리		30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하이라이트	10 엄마 아빠는 외계인	10 PD수첩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독립영화관	35 유희열의 스케치북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고구마줄기 등갈비찜, 팽이버섯 냉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프리카 <중국 비경 서해자유림기 우이산>	11:20 세계테마기행(재) <저 푸른 초원 위에 몽골 2부>	19:00 미니특공대 X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폭염과의 사투리 - 동물원과 식물원>	19:30 EBS 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IDF 2018 <실크로드의 아이들-무중력 소녀>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35 EIDF 2018 <이말>	20:40 세계테마기행 <맛진 신세계 말레이시아 2부 멈추고 싶은 순간 코타키나발루>
07:30 띠띠뽀 띠띠뽀	14:00 EIDF 2018 <푸지에>	21:30 한국기행 <틀리나오, 여름 소리 2부 강릉 소리 들리면 잔치 열리네>
08:00 당동영 유치원1~2	15:55 EIDF 2018 <리틀 파이어>	21:50 EIDF 2018 <모리야마 씨>
08:30 몬카트	16:15 주시위 오정 큐비츄	22:55 EIDF 2018 <불멸의 사만>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4:45 EIDF 2018 <강구 밤>
09:00 뽕뽕뽕 뽕뽕이	16:45 당동영 유치원1~2	25:55 EIDF 2018 <한국의 여인>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7:15 마사와 곰	
09:40 메디컬 다큐 - 요일 <내 딸의 출로서기 - 소두증 외>	17:30 띠띠뽀 띠띠뽀(재)	
10:30 한국기행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1일(음 7월 11일 乙酉)

<p>36년생 탄력을 받기에는 시일이 필요하다. 48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60년생 대상을 넓히고 다양하게 섭렵 하자. 72년생 모르고 있었으면 더 나은 뻔한 일이 보인다. 84년생 행운의 바다로 나가고 있으나 배가 너무 작다. 행운의 숫자 : 35, 18</p>	<p>42년생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54년생 가락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66년생 가뭄에 여길 문제가 아니다. 78년생 현저한 변화에 감쪽 놀랄 수밖에 없다. 90년생 무주공산에 걸고 있는 판도라 할 것이니 알아주는 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6, 56</p>
<p>37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49년생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61년생 지름길로 가려다 오히려 낭패를 볼 수다. 73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소비로 이어진다. 85년생 상호간의 조화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2, 57</p>	<p>43년생 실속 있는 관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55년생 가랑잎에 불 불듯이 일어나는 기세이다. 67년생 남은 좋지만 정작 주인공은 이득이 없었다. 79년생 확실하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91년생 명백한 조짐이 보이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96, 71</p>
<p>38년생 성사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50년생 의욕적으로 추진하면 승산이 있다. 62년생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이 지대할 것이다. 74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자. 86년생 파악해 보고 나서의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8, 43</p>	<p>44년생 부족하면 채워 줘야만 하느니라. 56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용할 것이다. 68년생 개선할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80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92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될지 모른다. 행운의 숫자 : 84, 11</p>
<p>39년생 파생되는 형세까지 다각적으로 신경 써야 할 때다. 51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 할 수 있다. 63년생 행하다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75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87년생 후속조치가 절실한 모양새이다. 행운의 숫자 : 89, 97</p>	<p>45년생 편견 없이 판국을 살핀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57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69년생 결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다. 81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따라 생기지 않을 것이다. 93년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2, 71</p>
<p>40년생 편면이 없애야하면 큰 안목을 놓치게 되리라. 52년생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64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 되어야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생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다. 88년생 손리에 역행한다면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39</p>	<p>34년생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46년생 절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가 상당하다. 58년생 불투명한 형국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 70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82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 없이 얻는 순이익이니라. 행운의 숫자 : 45, 08</p>
<p>41년생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이다. 53년생 먹구름 사이를 헤집고 희망의 붉은 해가 치솟는다. 65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77년생 어김없이 처리해야 한다. 89년생 객관적 타당성만 초기의 성과를 놓으리라. 행운의 숫자 : 41, 33</p>	<p>35년생 이제는 안심하고 지내도 된다. 47년생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영뚱한 것만 눈에 띈다. 59년생 매끄럽지 못하면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71년생 폭이 넓어지고 정도가 깊어지리라. 83년생 투병해야만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84</p>